

##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

송근아<sup>†</sup>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나아가 또래 애착이 거부 민감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남녀 중·고등학생 527명으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21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과 거부 민감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거부 민감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또래 애착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청소년, 우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

## ■ 서론

최근 질병관리본부(2018)에서는 전국 800개의 표본학교에 재학 중인 약 6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발표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의 조작적 정의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28.7%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빠른 신체 변화 속도에 비해 심리적·정서적 발달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혼란을 초래한다(권석만, 2000).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과도한 교육열과 대학교 진학 등의 문제로 또래 간의 지나친 경쟁이 심하며 성취압력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김민주, 도현심, 2017; 성준모, 2016). 따라서 청소년들은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정서원, 최진아, 2011). 통계청(2015)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의하면, 다른 연령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울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정옥분, 2008).

우울은 지속적인 침체된 정서, 흥미 상실, 수면 문제, 집중력 저하, 식욕과 체중의 변화 등의 증상을 수반하지만(George, Landerman, Blazer, Anthony, Ribbins, & Regier, 1991), 청소년기의 우울은 일반적

인 우울 증상과 다르게 과민성(irritability)이 두드러지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자신의 기분을 직접 호소하지 못하고 불면증, 복통, 두통,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Adele, 1997).

통계청(2015)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요우울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불법적인 약물사용, 흡연, 과도한 음주를 2배 이상 하였다(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 2016).

그러나 청소년기에 발생한 우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쳐 만성화가 될 위험성이 2~4배 높으며 재발의 위험성도 상당하다(Bhatia & Bhatia, 2007). 뇌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부정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뇌가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시냅스의 공고화 현상으로 부정적 사고와 정서가 자동화되어 우울이 우울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Hill & Castro, 2002). 선행연구에서 우울이 만성화되어 우울증으로 악화할 경우 자살 시도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ris, Berman, & Silverman, 2000), Kovacs와 Gatsonis(1989)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 우울을 발견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들은 우울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대인관계 요인과 인지 편향으로 보았으며(Disner, Beevers, Haigh, & Beck, 2011; Joiner, Coyne, & Blalock, 1999), 두 요인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요한 변인으로 거부 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에 주목하고 있

다(Normansell & Wisco, 2017). 거부 민감성이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둔 인지-정서적 처리 경향성으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지각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Ayduk, Downey, & Kim, 2001; Downey & Feldman, 1996).

도식 이론의 관점에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거부 도식(rejection schema)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지각된 정보를 거부 도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인지적 편향을 보인다(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류혜라, 2014; 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에 대해 지속해서 경계하며 거부 상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모호한 상황도 거부 단서로 해석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들은 거부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거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크며, 상대가 화가 나지 않도록 자신을 더 많이 희생한다(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Impett, Gables, & Peplau, 2005). 또한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이러한 회피행동은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더 병리적인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Ólafsson Smári, Guðmundsdóttir, Olafsdóttir, Harðardóttir, & Einarsson, 2011). 반면, 거부가 지각되면 예기 분노가 촉발되어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

하는 등의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무능함을 지각하며, 추후 거부상황에 더 민감하고 과잉 반응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이하희, 김유미, 2017).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경험할수록 불안,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저하 등 내재적 문제(Cooper, Shaver & Collins, 1998)와 사회적 위축, 또래 따돌림 등 또래 관계 문제(Simpson, Rholes, & Phillips, 1996)와 같은 외현화 문제가 유발된다. 특히,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부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수용 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울을 초래한다(Brown & Harris, 1978; Liu, Kraines, Massing-Schaffer, & Alloy, 2014).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반추, 파국화, 타인 비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 처리 과정을 사용하여 더욱 우울에 취약하다(류혜라, 2014; 임유경, 2011; Mellin, 2012).

특히 거부 민감성이 발달한 청소년의 경우 내부 귀인이나 적대적 편향과 같은 왜곡된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또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거부 민감성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Christman, 2012). 따라서 거부 민감성은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으로 주목할 수 있다(임유경, 2011; 홍상황, 박현아, 201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높은 거부 민감성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조절 변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행동이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관점에서, 거부 민감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환경적 변인으로 또래 애착(peer attachment)을 가정할 수 있다. 또래 애착이란 또래와 신뢰, 의사소통,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장관방, 김영미, 2014; 장휘숙, 1997; Armsden & Greenberg, 1987). 또래 관계와 거부 민감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또래 애착과 거부 민감성이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소영, 2014), 거부 민감성이 낮을수록 또래 관계 질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지연, 2012). 실제로 London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환영받고 또래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지목된 남·여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부 민감성이 낮아졌으며, 특히 거부를 예측함으로써 유발하는 불안한 감정이 감소하였다.

청소년기 또래 애착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또래 지지와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여 고통을 분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Laible, Carlo, & Roesch,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높은 수준의 또래 애착 경험은 스트레스 감소 및 적응,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에 만족감,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상미, 남진열, 2011;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Buhs & Ladd, 2001). 청소년은 또래와의 애착 형성을 통해 사회적 기술능력을 습득하고 발달시키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Savin-Williams & Berndt,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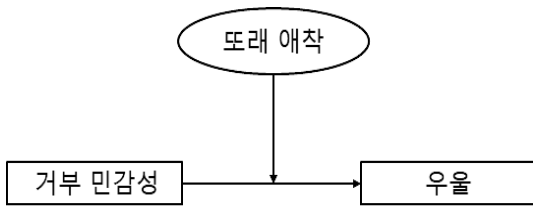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이 시기에 경험

할 수 있는 우울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래 애착과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혜영, 한혜진, 최정명, 박승미, 이주현, 2014; 옥정, 1998;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Armsden & Greenberg, 1987; Hoseinzadeh & Khanjani,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지지, 친밀감, 도움 등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이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또래 애착과 심리적 적응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외에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 및 평가가 삶에 대한 통합감과 관계가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Dunn & O'Brien, 2009; Settersten, 2002). 구체적으로 거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또래 애착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거부 민감성이 높더라도 또래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우울, 분노 반응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 선행연구에 근거한 것이다(Chango, McElhaney, Allen, Schad, & Marston, 2012; McDonald, Bowker, Rubin, Laursen, & Duchen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2018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본 조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기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조사자의 설명 후 배부 및 회수하거나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 및 회수되기도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 총 587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어 불성실하게 응답한 60부를 제외한 총 52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구분은 남자가 233명(42.3%), 여자가 304(57.7%)이었으며, 학년의 구분은 중학생이 277(52.6%), 고등학생이 250(47.4%)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27)

변인	구분	사례 수(N)	비율(%)	
학교 소재지	서울	325	61.70	
	경기	75	14.20	
	인천	22	4.20	
	기타	105	19.90	
성별	남자	223	42.30	
	여자	304	57.70	
학년	중학교	1학년	81	29.20
		2학년	95	34.30
		3학년	101	36.50
		전체	277	52.60
	고등학교	1학년	77	30.80
		2학년	94	37.60
		3학년	79	31.60
		전체	250	47.40

## 2. 연구 도구

### 1)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5)가 개발한 소아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7세~17세 아동·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지만, 예비조사에서 중학생의 경우 성인용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민정, 정경미 및 김은성(201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CDI를 사용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CDI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 정서', '행동 장애', '흥미 상실', '자기 비하', '생리적 증상' 등 5개의 하위요인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우울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0점에서 2점으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5이었다.

### 2) 거부 민감성 척도(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 CRSQ)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 민감성 질문지(children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수정한 한국판 CRS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거부 불안 민감성(예: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한가요?)', '거부 분노 민감성

(예: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을까 봐 짜증이 나 화가 나나요?)', '거부 우울 민감성(예: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을까 봐 속상하거나 우울한가요?)' 등 3개의 하위 요인의 12가지 상황으로 총 4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아주 많이 그렇다')로 평정되며, 불안, 분노, 우울의 각각의 점수에 거절 예상 점수를 곱하여 12가지 상황 점수들의 평균 값을 내며, 평균이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90로 나타났다.

### 3)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김지연(1995)이 번안·수정하고 황미경(2010)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 3개의 하위 요인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결코 아니다', 4점='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우울, 거부 민감성 및 또래 애착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 거부 민감성 및 또래 애착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 분석을,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연구 결과

### 1. 변인들의 성차

청소년의 우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우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우울과 거부 민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거부 민감성 모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종속변인인 우울의 경우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 2. 변인들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우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과 거부 민감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r=.39, p<.001$ ), 우울과 또래 애착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r=-.22, p<.05$ ),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2, p<.05$ ).

### 3.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

<표 2> 변인들의 성차

(N = 527)

구분	전체	남(n=223)	여(n=304)	t
	M(SD)	M(SD)	M(SD)	
우울	16.57(7.68)	16.49(7.94)	18.44(7.64)	-2.85**
거부 민감성	6.85(3.45)	6.41(3.38)	7.18(3.46)	-2.55*
또래 애착	26.68(4.42)	26.34(4.52)	26.92(4.33)	.37

\*  $p < .05$ , \*\*  $p < .01$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527)

	1	2	3
1. 우울	1		
2. 거부 민감성	.39***	1	
3. 또래 애착	-.22*	-.22*	1

\*  $p < .05$ , \*\*\*  $p < .001$

인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종속 변인인 우울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통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계수는 1.89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는 .91~.98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11~1.02로 10이하 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은 거부 민감성( $\beta=.41, p<.001$ ), 또래 애착( $\beta=-.11, p<.05$ ), 성별( $\beta=-.09, p<.05$ )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거부 민감성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으며( $F=129.37, p<.001$ ), 또래 애착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 증가한 21%로 나타났으며( $F=68.02, p<.001$ ). 이에 다시 성별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총 22%로 나타났으며( $F=47.44, p<.001$ ).

#### 4.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iken 등(1991)이 제안한 위계적(hierarchical)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계수는 1.92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한계는 .90~.99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은 1.01~1.10로 10이하 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서 성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인에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는 거부 민감성과 우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 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센터링(mean centering)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도식화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앞서, 우울과 독립표본 t검정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진 성별의 변인을 통제하였다( $\beta=.08, p<.05$ ). 이후 1단계에서 거부 민감성( $\beta=.43, p<.001$ ), 또래 애착( $\beta=-.10, p<.001$ )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대해 총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F=51.09, p<.001$ ). 2단계에서는 거부 민감성과 우울의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상호작용

<표 4>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527)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우울	1	거부 민감성	.83	.41***	.20		129.37***
	2	또래 애착	-.17	-.11*	.21	.01	68.02***
	3	성 별	-1.27	-.09*	.22	.01	47.44***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 $p < .05$ , \*\*\* $p < .001$



〈표 5〉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 (N= 527)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우울	1	성별	1.30	.08*	.23	51.09***	
	단	거부 민감성 (A)	.96	.43***			
	계	또래 애착 (B)	-.17	-.10***			
	2	성별	1.45	.09*	.24	.01	40.14***
	단	거부 민감성 (A)	.95	.42***			
	계	또래 애착 (B)	-.17	-.10*			
	거부 민감성 × 또래 애착 (A × B)	-.04	-.09*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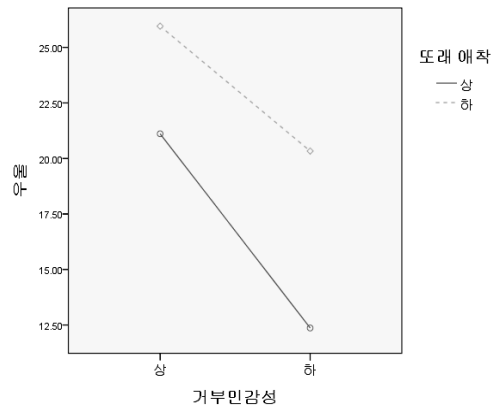
\* $p < .05$ , \*\*\* $p < .001$

변인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9, p < .05$ ),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1% 증가하여 총 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40.14, p < .001$ ). 즉, 거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 = 40.14, p < .001$ ).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거부 민감성 점수와 또래 애착 점수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집단(+1SD)과 하집단(-1SD)으로 나누어 도식화 한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정 결과, 또래 애착의 상집단( $\beta = -.44, p < .001$ )과 하 집단( $\beta = -.39, p < .001$ ) 모두 단순회귀선 기울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과 또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나아가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그림 2〉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과 거부 민감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또래 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울과 거부 민감성 수준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행동의 수준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구미향, 이양희, 2003; 박진경, 도현심, 2001; 정익중, 이지연, 2012; Jane Costello, Erkanli, & Angold, 2006; Twenge & Nolen-Hoeksema, 2002; Wade, Cairney, & Pevalin,

2002). 거부 민감성 또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심하늬, 김희화, 2017; Zimmer-Gembeck, Trevaskis, Nesdale, & Downey, 2014). 이러한 결과는 사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유현, 정소희, 최웅용, 2018), Nolen-Hoeskma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사고에 더 집중하여 우울과 거부 민감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과 거부 민감성으로 인한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거부 민감성,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거부 민감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 역시 높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류혜라, 2014; 박민숙, 2014; 장진이, 곽노은, 이지연, 2016). 이는 Beck(2008)의 ‘스키마 모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스키마 모델에 의하면 사건에 대한 정보의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스키마와 일치하는 요소만 선별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우울 요소와 관련된 개인의 신념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다(Beck, 2008; Disner, Beevers, Haigh, & Beck, 2011; Everaert, Koster, & Derakshan, 2012). 거부에 민감할수록 거부가 예측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부 스키마와 일치하는 요소만 선별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거부에

취약한 스키마가 내재하여 있는 경우 우울 스키마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왜곡된 인지적 정보처리가 우울 증상의 발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거부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하기 위한 치료계획이 필요하겠다.

셋째,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높은 경우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래 애착이 낮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특성인 거부 민감성이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지만 또래 애착의 정도에 따라 영향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타인인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 경우에 거부에 민감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우울을 적게 경험할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이하희, 김유미, 2017).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래관계능력을 강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인지-정서적 과정 변인인 거부 민감성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 심리적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또래 변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프로그램 구성 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울한 청소년들에게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지적 패턴을 파악한 후 적응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울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그때의 상황과 생각, 감정, 행동을 자동적 사고 기록지에 자세하게 작성한 후, 파국화, 자기 비난과 같은 자신의 사고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 질문, 증거 점검하기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고, 자기 주장하기, 거부하기, 셀프 토크하기 등의 행동적 개입을 계획하고 실시한다면 우울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 애착이 거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또래 맺기 방법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친구를 칭찬하기, 웃기, 적극적인 활동 참여, 잘 듣기, 대답하기, 협동하기와 같은 사회기술 훈련을 코칭하고, 칭찬과 상과 같은 긍정적 강화, 흥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구성 등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우울장애의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 집단이 아니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변의 시선에 예민하거나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하여 연구대상자의

편향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이외에도 면접, 행동관찰 등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발달 과정에 따른 또래 애착 관련 변인 간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및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거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을 검증하는데 치중하여 변인들의 하위 요인 별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구미향, 이양희 (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6(1), 341-363.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민주, 도현심 (2017).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Korean J Child Stud**, 38(2), 133-148.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소영 (2014).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스마트폰독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혜라 (2014).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박민숙 (2014). 여자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주의조절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35-51.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15-37.
- 박진경, 도현심 (2001). 어머니의 감독 (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129-140.
- 성준모 (2016).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단적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4), 93-111.
-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발현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1(1), 93-114.
- 심하니, 김희화 (2017). 남녀 청소년의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 효과와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2), 101-110.
- 안혜영, 한혜진, 최정명, 박승미, 이주현 (2014).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 애착, 학교생활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7(3), 140-147.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 (Perceived Competence)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이유현, 정소희, 최용용 (2018).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125-147.
- 이하희, 김유미 (2017). 초등학교생의 거부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자기자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1), 67-83.
- 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거부 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임유경 (2011). **거부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관방, 김영미 (2014).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공공정책연구**, 31(2), 101-130.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진이, 곽노은, 이지연 (2016).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 거부 민감성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8(1), 285-304.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정서원, 최진아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또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2, 87-111.
- 정옥분 (2008). **청소년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익중, 이지연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지연 (2012). **초등학교생의 거부 민감성, 또래관계 양과 질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회**, 29(4), 943-956.
- 질병관리본부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 14차(2018) 주요결과**.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 동향 2015.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ntc/1/index.board?bmode=read&aSeq=350385](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ntc/1/index.board?bmode=read&aSeq=350385)에서 2015. 12. 10 자료 연음.
- 홍상환, 박현아 (2014). 교육학 이론 및 실제: 아동의 또래 거부 민감성과 또래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1), 55-74.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 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ele, D. H. (1997). Depression and suicide. *Adolescent Medicine*, 3rd ed. Stanford: Appleton and Lange, 835-852.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 877.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eck, A. T. (2008). The evolution of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and its neurobiological correl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8), 969-977.
- Bhatia, S. K., & Bhatia, S. C.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1), 73-80.
- Brown, G. W., & Harris, T. O.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London: Tavistock.
-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 (2016). *2015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Detailed Tabl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Rockville.
- Chango, J. M., McElhaney, K. B., Allen, J. P., Schad, M.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3), 369-379.
- Christman, J. A. (2012). *Examining the interplay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compassion, and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Disner, S. G., Beevers, C. G., Haigh, E. A., & Beck, A. T. (2011). Neural mechanisms of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2(8), 467-477.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unn, M. G., & O'Brien, K. M. (2009). Psychological health and meaning i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in Latina/Latino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1(2), 204-227.
- Everaert, J., Koster, E. H., & Derakshan, N. (2012). The combined cognitive bias hypothesis in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5), 413-424.
- George, L. K., Landerman, R., Blazer, D. G., Anthony, J. C., Robbins, L. N., & Regier, D. A. (1991). *Psychiatric disorders in America: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y*. New York: The Free Press.
- Hill, R. W., & Castro, E. (2002). *Getting rid of ritalin*. Virginia: Hampton Roads.
- Hoseinzadeh, M., & Khanjani, Z. (2016). Prediction of Teenager Depression Based on Social Skill, Peer Attachment, Parental Attachment and Self-esteem. *Asian Social Science*, 12(8), 251-259.
- Impett, E. A., Gable,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Jane Costello, E., Erkanli, A., & Angold, A. (2006). Is there an epidemic of child or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2), 1263-1271.
- Joiner, T., Coyne, J. C., & Blalock, J. (1999). On the interpersonal

- nature of depression: Overview and synthesis. In T. Joiner & J.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Advances in interpersonal approaches* (pp. 3-1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vacs, M. (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4), 955-988.
- Kovacs, M., & Gatsonis, C. (1989).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hood-onset depressive disorders: longitudinal course as a diagnostic validator. In *The validity of psychiatric diagnosis* (pp. 57-75). Raven Press New York.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evy, S. R., &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u, R. T., Kraines, M. A., Massing-Schaffer, M., & Alloy, L. B. (2014).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mediation by stress generation.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7(1), 86-97.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17(3) 481-501.
- Maris, R. W., Berman, A. L., & Silverman, M. M. (2000). The Empirical Foundations of Suicidology. In R. W. Maris, A. L. Berman & M. M. Silverman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PP. 62-96). New York: Guilford Press.
- McDonald, K. L., Bowker, J. C., Rubin, K. H., Laursen, B., & Duchene, M. S. (2010). Interac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s'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5), 563-574.
- Mellin, E. A. (2012).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 Long-Term Impact of Social Hurt. *Adultspan Journal*, 11(1), 2-15.
-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92-104.
- Normansell, K. M., & Wisco, B. E. (2017).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s a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Cognition and Emotion*, 31(5), 950-962.
- Ólafsson, R. P., Smári, J., Guðmundsdóttir, F., Ólafsdóttir, G., Harðardóttir, H. L., & Einarsson, S. M. (2011). Self reported attentional control with the Attentional Control Scale: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ship with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6), 777-782.
- Savin-Williams, R. C., & Berndt, T. J. (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77-30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ttersten Jr., R. A. (2002). *Social sources of meaning in later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899-914.
- Twenge, J. M., & Nolen-Hoeksema, S. (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578-588.
- Wade, T. J., Cairney, J., & Pevalin, D. J. (2002).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National pane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1(2), 190-198.
- Zimmer-Gembeck, M. J., Trevaskis, S., Nesdale, D., & Downey, G. A. (2014). Relational victimization,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direct associations via self and peer report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4), 568-582.

원고 접수일: 2019. 12. 02

수정원고 접수일: 2019. 12. 07

게재 결정일: 2019. 12. 08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Korean Journal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Counseling  
2019, Vol. 1, No. 1, 15-29

##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Depression in Their Adolescent: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Song, Keun Ah (Myongji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rejection sensitivity and peer attachment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The sample population was 5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in between boys and girls. Second, rejection sensitivity was mostly accounted for by depression. Third, peer attach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Peer Attachment